

# 서유럽 주식시장 동향(10월) 및 11월 전망(2017.11.2)

박성우

☎ 82-2-3774-0451

✉ p3swo@futur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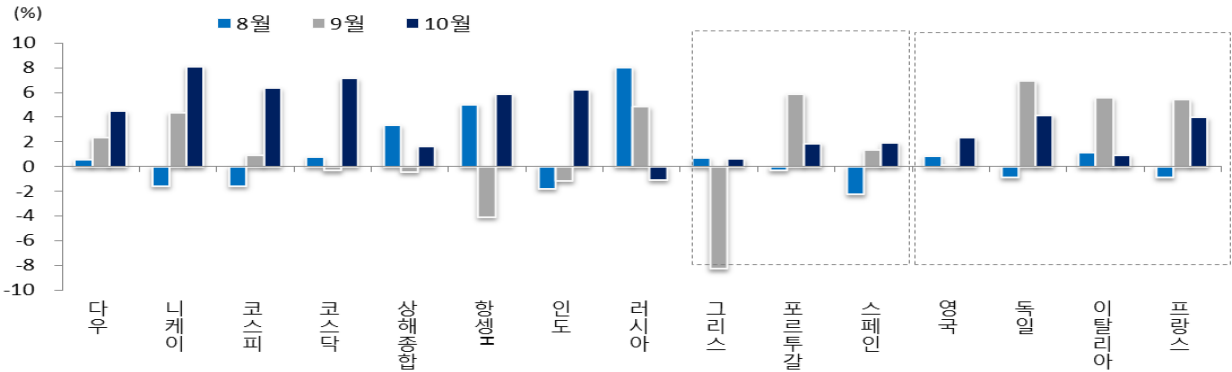
## [10월 동향]

■ 10월 서유럽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따른 경기 개선 인식, 온건한 테이퍼링 계획을 제시한 ECB,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 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초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에 따른 스페인 정부와의 갈등이 불확실성 재료가 작용하는 모습이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 정부의 세제안 기대감 및 차기 연준 의장 선임 이슈 관련 달러강세 속 10월 중 유로화가 약세 전환한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11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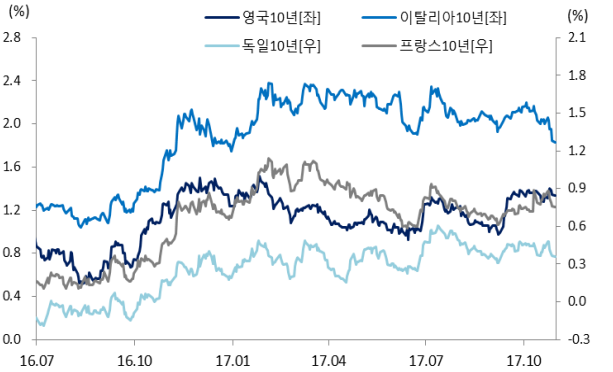
■ 유로존 3분기 GDP가 전기대비 0.6%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웃돌고 각종 서베이 지표도 호조를 이어가면서 유로존 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1월 서유럽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CB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했으나 상당기간 보유채권 재투자 및 정책금리 동결, 필요시 QE 연장 등 예상보다 온건한 금융긴축 기조를 밝힌 점도 긍정적입니다. 중장기적 유로/달러는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의 일시적 유로화 약세도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카탈루냐 분리독립 관련 스페인과의 갈등 확대 여부는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차트. 주요국 증시 월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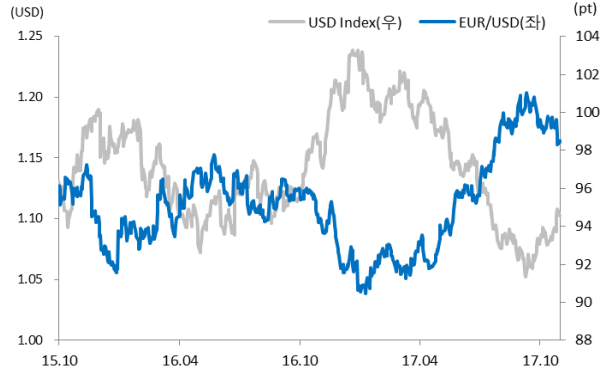
출처: 연합인포맥스,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 서유럽 주요국 10년 국채수익률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 유로-달러 환율, 달러인덱스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 서유럽 주요국 증시 추이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영국, 독일, 그리스, 프랑스)



출처: 연합인포맥스

[유로존 10월 주요 경제지표 및 이슈]

- ▶ 독일 10월 CPI 1.6%(YoY) 전월 1.8%, 0.0%(MoM) 전월 0.1%
- ▶ 유로존 9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58.6, 전월 58.1, 서비스업 PMI 54.9, 전월 55.8
- ▶ 유로존 10월 ZEW 서베이 예상 26.7 (전월 31.7), 10월 섀프티 투자자기대지수 29.7(전월 28.2)  
유로존 10월 경기체감지수 114.0(전월 113.1)
- ▶ 독일 8월 IFO 기업환경지수 116.7(전월 115.3), 경기동행지수 124.8(전월 123.7)  
향후 6개월 기업전망지수 109.1(전월 107.5), ZEW 경기기대지수 17.6(전월 17.0)
- ▶ 유로존 8월 산업생산 MoM 1.4%(전월 0.3%), 산업생산 YoY 3.8%(전월 3.6%)
- ▶ 유로존 10월 CPI MoM 0.1%(전월 0.4%), CPI YoY 1.4%(전월 1.5%), 근원CPI YoY 0.9%(전월 1.1%)  
8월 PPI MoM 0.3%(전월 0.0%), PPI YoY 2.5%(전월 2.0%)
- ▶ 유로존 8월 소매판매 1.2%(YoY) 전월 2.3%. 소매판매 MoM -0.5%(전월 -0.3%)
- ▶ 유로존 10월 소비자자기대지수 -1.0(전월 -1.2)
- ▶ 유로존 9월 실업률 8.9%, 전월 9.0%
- ▶ 10월 ECB 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 올해 12월로 종료 예정인 월 600억유로의 자산매입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9개월 연장. 월별 매입액은 월 300억유로로 축소. 보유자산 만기도래 재투자 진행 및 필요 시 자산매입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며 완만한 테이퍼링 착수 계획을 밝힘. 완만한 금융긴축 시사에 당일 유로존 금리 및 유로/달러 환율 하락.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